

# 익산 '장점마을' 환경마을로 거듭난다

(주민 집단 암 발병지)

### 익산시, 204억원 투입... '제1호 환경시범마을' 조성 본격화 오염원 제거·환경개선 작업 진행... 주민 의료지원 사업도

익산시가 주민 집단 암 발병지인 장점 마을을 '제1호 환경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다양한 마을재생 사업을 통해 환경친화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장점마을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약 204억원을 투입해 마을 사후관리, 환경개선 등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전북도도 함께 추진한다.

익산시는 먼저 마을 비료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키로 했으며,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도 함께 시작한다.

앞서 부지 활용을 위해 9억3000만원을 투입해 비료공장을 매입했다.

마을에 남아있는 각종 오염원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8억3000만원을 투입해 공장 내 매립된 폐기물 제거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마을 저수지와 인근 논에 대한 오염원 제거 및 복구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환경시범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정비사

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마을 지붕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32가구가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세대별로 침적먼지 제거·복구 작업이 본격화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80ha를 추가로 조성하고 대체작물로 토양정화식물 식재를 유도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지난해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매도 진행한다.

장점마을을 포함해 장고재·월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원광대병원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은 사전 신청한 120명에 대해 실시되며, 심리치유와 찾아가는 한방진료 등 프로그램을 병행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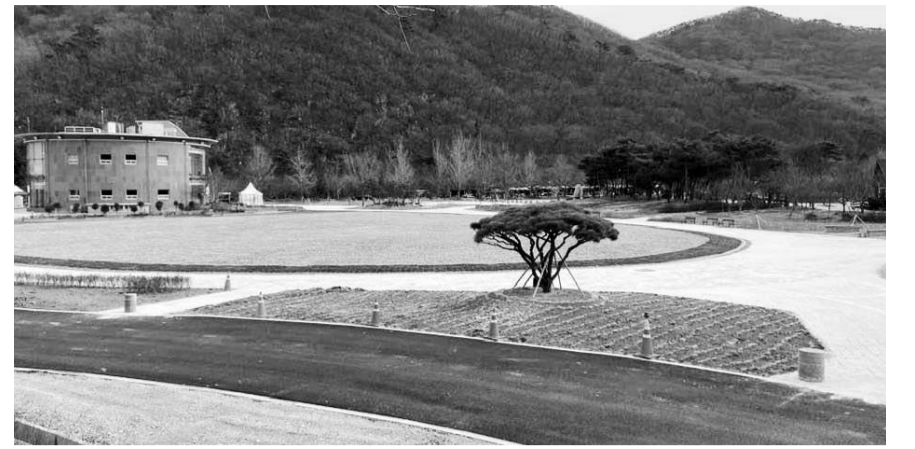
주민들을 1대 1 밀착 관리한다.

이 밖에도 '마을만들기 개발사업'으로 진료공간이 포함된 다목적 주민복지센터가 신축되며 LPG가스 보급, 하수처리 시설 설치, 버스승강장 교체 등 건강한 농촌 환경으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이들 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마을 주민들과 추가 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대표 환경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 고통을 잊지 않고 환경의 중요성을 기억하기 위해 장점마을을 제1호 환경시범마을로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청정 익산,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의 대표 관광지 선운산도립공원에 캠핑장과 경관폭포가 조성된다. 사진은 선운산 캠핑장 모습. <고창군 제공>

## 선운산에 캠핑장·폭포 만들어 관광명소화

### 고창군, 10억 투입 내년 완공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고창의 대표 관광지 선운산도립공원에 캠핑장·경관폭포 등을 새로 조성해 국민 관광명소로 도약한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선운산도립공원 도솔계곡 주변에 경관폭포와 전망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겨울에는 경관 방벽을 연출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폭포는 올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 여가 캠핑장도 들어선다. 카라반 구역 8면, 글램핑 구역 6면 등 총 42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취사장·샤워실 등도 설치돼 캠핑에 관심이 많은 캠핑족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 생태숲 옆 공터는 잔디광장으로 만들어 단체 관광객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밖에 선운산 맞은편 은행나무 군락지에 휴게쉼터를 만들고, 공원 내 실개천·소나무 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힐링 쉼터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생태숲 방문자센터 숲속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군산 음식 배달앱 '배달의 명수' 내달 출시

### 수수료·광고료 없고 소비자 할인 혜택까지 '일석이조'

군산사랑상품권 출시에 이어 '군산사랑 제2탄' 군산사랑배달앱이 다음달 출시된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 최초로 공공 음식 전문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명수'를 다음달 초 출시할 계획이다.

이 앱은 민간의 음식 배달 앱과 달리 가맹 소상공인들이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배달앱이다. 소비자는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간단한 절차를 밟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배달의 명수는 특히 할인율 8%인 군산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소비

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음식을 조리해 배달할 수 있는 업소는 모두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500여곳이 현재 신청한 상태다. 시는 연말까지 가맹점을 1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출시를 기념해 '심심+할인' (마음과 마음을 더해 혜택이 두배로)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이 자체 제공하는 즉시할인쿠폰은 연중 제공된다.

'군산사랑 제1탄'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다면, 제2탄 군산사랑배달앱은 상품권 유통 기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선순



군산시가 지자체 최초 공공 음식 전문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 출시를 앞두고 지난 20일 시연을 마쳤다. <군산시 제공>

환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이다.

사업주는 가입비·수수료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로, 사

업주도 소비자도 윈윈하는 '상생 어플'이 될 것으로 군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탐방열차 운행

고창군은 지난 20일부터 람사르 운곡습지에 홍보관과 탐방열차 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운곡습지는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내 국가습지보호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이다.

홍보관은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운곡습지의 유래와 습지 보전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체험과 교육의 공간이다.

체험시설로는 각종 미디어플레이어, 습지생태관, 방명록과 습지를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게스트북 등이 있다. 2층 교육시설에서는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람평의회를 통해 다양한 생태교육이 진행된다.

'람사르 운곡습지 탐방열차'는 친환경 주차장에서 생태공원까지(3.5km, 20분)를 왕복으로 운행한다. 동승한 자연환경 해설사 또는 지질해설사의 운곡습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아름다운 경관과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탐방열차는 초등학교 이하는 1000원, 중학생 이상은 2000원으로 편도 매표만 가능하다.

특히 람사르 운곡습지 내 시설물과 도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탐방열차 운행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일반차량은 모두 통제되고 있다.

김미란 고창군 생태지질탐방은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업무와 학업 등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운곡습지 주차장에서 생태공원까지 3.5km를 오가는 '람사르 운곡습지 탐방열차'. <고창군 제공>

에코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라며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 설문조사 용역 시행

남원시는 교정시설(교도소) 유치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 용역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원시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설명 및 자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또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시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교정시설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오해와 반대여론이 아직 남아 있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전반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용역은 2월부터 4월까지 40일간 23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 800여명을 표본 대상으로 1대 1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남원시는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 의견, 유치 찬·반 의견, 건립부지 공모 후보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정시설을 단순히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국가기관 유치로 인식하기 바란다"면서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시민의 소리를 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개최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으로 연기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주민설명회와 후보지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순창군, 쓰레기 투기 단속 '클린순창만들기' 추진단 운영

순창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클린순창 실현을 위해 '클린순창만들기 추진단'을 구성,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질적인 상습 쓰레기 투기 장소에 대한 정비활동과 단속활동을 벌여 쓰레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추진단은 클린순창만들기에 열정이 있는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했으며, 다음 달

부터 골짜기·하천변·지역 경계구간 등 불법투기 단속과 쓰레기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쓰레기 정비활동을 벌인다.

순창군은 현재 상습 쓰레기투기지역이 50여 곳에 달하고, 불법 쓰레기양도 100t 이상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